



구색 맞추기 시절, 행복한 책읽기 안내합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차분하면서도 생기 있는 목소리로 책세상 소식을 전하는 아나운서가 있다. MBC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 책세상〉을 진행하는 강영은 아나운서가 그 주인공. 스튜디오 녹음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그는 손에 소설책을 들고 있다. 저자와의 인터뷰를 준비중이라고. 강 아나운서는 목소리와 참 잘 어울리는 단아한 외양을 가졌다는 느낌이 든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독자라면 표준 FM 주파수 95.9에 맞추면 된다. 방송시간은 아침 7시 10분부터 50분간. 방송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다시 듣는 것도 가능하다. 강 아나운서는 전달력이 뚜렷하면서도 편안하고 여유 있는 진행이 매력적이다. 목소리만 들어서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나이. 하지만 그녀는 아나운서 입문 18년차의 중견이다.

“방송국에 입사한 게 1985년도였어요. 그동안 TV와 라디오를 넘나들면서 주로 문화 관련 프로그램과 교양 정보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죠. 〈책과 인생〉〈TV 특강〉 같은 프로그램들도 맡았죠. 그리고 지금은 인터뷰의 계기가 된 〈라디오 책세상〉을 맡고 있어요. 교양 프로그램 전문 아나운서가 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양정보 프로그램은 딱딱하고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강 아나운서는 특유의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진행으로 프로그램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교양 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일하는 건 물론이다. 〈라디오 책세상〉도 현재 18개월째 진행중인데 청취자들과 주변의 반응이 좋다. 그렇다면 교양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글쎄요. 방송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즐겁게 일할 수 있으니까요. 매주, 숙제처럼 책을 읽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저는 즐기는 편이에요. 책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환경이 고마운 거죠. 현장에서 보



람을 느끼는 경우를 꼽으라면 저자로부터 책을 꼼꼼하게 읽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예요.”

책 소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심야나 이른 아침 시간대에 편성되는 게 보통이다. 〈라디오 책세상〉도 예외는 아니다. 시청률이나 청취율이 오락 프로그램에 비해 낮다 보니 편성국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강 아나운서는 이런 현실을 수긍하면서도 교양정보 프로그램들의 사회적 역할과 소용을 강조한다.

“사회상을 반영하는 게 방송의 속성이지만 오히려 방송이 먼저 가벼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



다고 생각해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들도 지금은 모두 희화화되거나 풍자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개인적으로는 교양적이고 진지한 프로그램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서 가벼운 사회풍토에 제동을 거는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라디오의 책 정보 프로그램은 방송국마다 공히 한두 편씩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취자라면 각 프로그램들을 비교해서 듣는 것도 가능하다. 강아나운서는 <라디오 책세상>을 다른 프로그램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제작진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한다. 작가나 스태프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도 의견을 내고 질문이나 내레이션도 직접 만든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라디오 책세상>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과연 무엇일까?

“예전에는 방송 편성을 할 때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책 소개 프로그램들이 구색을 맞추는 식으로 편성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스태프나 진행자들이 의욕을 갖고 소신껏 일을 하지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의 개성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라디오 책세상>은 프로그램의 성격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가벼운 정보들만을 제시할 수는 없거든요. 심층적인 주제를 다루기 위해 우리가 만든 코너가 ‘행복한 책읽기’ 예요.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인 장석주 선생이 진행하는데 텍스트 해석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텍스트가 함의하고 있는 삶의 의미들, 인생에 대한 통찰 등을 시도하죠.”

강아나운서는 학창시절 문학에 심취했었다. 글도 곧잘 써서 상도 많이 받았다. 물론 책을 읽는 것도 꽤 좋아했다. 그는 그런 경험이 방송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힌다. 1년 반 넘게 책 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책을 보고 고르는 나름의 안목이 생겼을 터. 강아나운서로부터 좋은 책의 요건을 들어봤다.

“저는 좋은 책에는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요. 독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책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테니까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대중소설도 사실은 책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독서의 체험을 안겨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은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유도하는 책이에요.”

그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다. 공을 들이지 않고 아는 길로만 쉽게 쉽게 가는 것. 강아나운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적인 애정과 함께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그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꾸미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아나운서로서, 한 사람의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고자 노력한다.

“아나운서 하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일정한 업무와 역할이 있어요. 라디오의 짧은 뉴스 진행도 번갈아가면서 해야 하구요. 늘 긴장해야 하는 일이 방송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보다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고 싶다고 밝힌다. 트렌드도 무시할 수 없지만 나름의 안목으로 좋은 책들을 골라서 많이 소개하고 싶다고.

“최근에는 탁났한 스님의 책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뚜렷한 기준을 갖고 좋은 책을 고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취자들에게 정보로서의 다양한 책읽기를 권장하는 거죠.”

인터뷰를 마치고 방송 대본을 정독하는 그를 보면서 일요일 아침을 책의 향기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한글**

취재 김도연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